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비전2000

“눈을 들어 이웃을 보라”

’97비전2000운동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된다.

비전2000운동이란 21세기가 되기 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우리교회는 1991년 교회 창립에 앞서 7주간의 특별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고, 50일째 되는 11월 24일에 교회창립예배를 드렸다. 그 후 해마다 교회설립일 50일 전이 되면 비전2000운동을 선포하고 기도와 전도운동을 전개해 왔다. 교회 설립일을 7주 앞두고 해마다 50일간 갖는 우리교회의 이 행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일을 집중적으로 행하며 전도를 위한 기도운동을 겸하여 벌이고 있다.

올해도 이와 같은 취지 하에서 10월 5일 찬양예배 시에 발대식을 갖고 50일간의 기도와 전도운동을 전개한다.

개요

표어 “천국 복음을 만민에게”

행동강령 ① 기도하자 ② 복음 전하자 ③ 잃은 양을 찾자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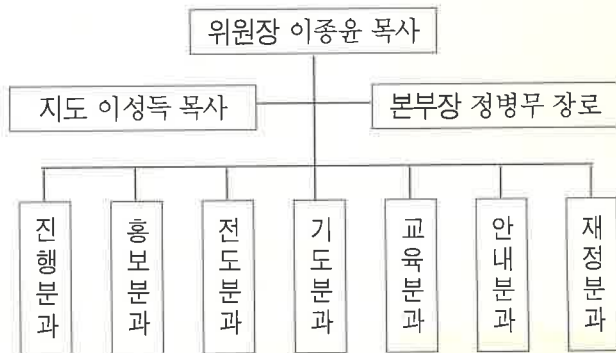
- ① 기도 - 다니엘기도와 50일 연속기도,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전 교인이 참여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
- ② 전도 - 전교인이 빠짐없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믿지않는 가족·이웃·친척 초청, 1인10명전도, 노방전도, 사랑과 봉사로 행동으로 하는 전도 실행)
- ③ 잃은 양 찾기 - 각 기관 및 선교회·전도회에서는 이삭줍기운동을 편다.
- ④ 배가운동 - 교구 및 다락방, 교회학교에서는 배가운동을 편다.

- 주제성구 “눈을 들어 이웃을 보라 회하여 추수하게 되었다”(요4:35)
- 주제찬송 “온 세상 위하여”(찬 268)

기도제목

1.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2. 가족, 친척,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3.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4. 잃은 양들을 찾게 하옵시고 각 기관마다, 다락방마다 배가되게 하옵소서.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센터가 될 새 예배당 건축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6.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7. 북한 땅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조직



교사대학 강좌

9월 교사대학 강좌가 오늘 II부 예배 후 1층 예배실에서 열린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교회 교육과 학생 이해”이며 강사는 오인택 교수(연세대)이다. 이 강좌에는 교사교육에 관심이 있는 성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스데반회 수련회

우리 교회 안수집사들의 모임인 스데반회에서는 10월 2일(목)부터 3일(금)까지 1박 2일간 제주도에서 가족동반 연례수련회를 개최한다.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수련회에는 피택안수집사 가족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모세선교회 전방 시찰

모세선교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전방 군부대를 시찰할 예정이다. 연례 수련회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전방부대 시찰에는 모세선교회 회원과 가족 및 초청인원 등 35명이 참가하게 된다.

장신대 신대원 지원자 청원서 제출

장신대 신대원(M. Div.과정)에 지원할 성도는 9월 30일(화)까지 청원서를 당회장 앞으로 제출해 줄 것이 요망된다. 지원자는 당회의 허락을 받은 후 10월 21일(화) 오전 10시 소망교회당에서 실시되는 목사후보생고시에 응해야 한다.

새 예배당 소식

주차장도 여호와 이레!

인근에 시영주차장 계획

새 예배당이 들어설 대치동 부근에 시영주차장이 들어선다. 새 예배당에서 약 70M 남쪽 대치역 부근에 위치하게 될 이 주차장에는 600여 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다.

행정당국은 오랫동안 몇몇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을 보류해 왔던 이 사업을 주민 투표에 붙여 이를 해결하고 시 예산으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강해설교
여호수아서

10장 16절 ~ 12장 24절

“...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 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엘 겐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립나 왕이요 하나는 아들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엘 왕이요 하나는 담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뚝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든 왕이요 하나는 하술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므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므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욱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도합 삼십 일 왕이었더라”(10:16 - 12:24)



이종운 목사

가나안 정벌

여호수아 10장 중반까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여리고 성, 아이 성, 그리고 기브온 언덕에서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언덕에서 승리한 것을 기점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벌에 나섭니다.

1. 남방정벌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고상한 정신을 발휘한 장군입니다(10:8). 여호수아는 기브온이 화친조약을 맺기 위해 비록 자기들을 속였지만 약속한 바를 지키고, 그들의 과거 잘못을 용서하고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돕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사 원수를 큰 우박 재앙으로 죽이셨으며(10:11),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10:12). 이로써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사랑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막게다 굴에 숨은 다섯 왕을 잡아내어 죽였습니다. 이같은 처사는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하는 것이니 만큼 여호수아는 여러 족속들을 철저히 진멸하되 그들의 모든 근거조차 없애버렸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죄의 뿌리까지 뽑아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10:30, 32, 40, 42).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매번 승리를 거둬했습니다(10:42).

2. 북방정벌

가나안 땅의 북방에 있는 왕들은 남쪽에 있는 왕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를 듣고 동맹군으로 방어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도의 담력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때 생깁니다(시27:3 - 4).

여호수아가 북방 나라들을 정벌할 수 있었던 것에는 몇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전투에 임했습니다(11:6). 둘째, 그들은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11:7). 우리는 이처럼 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승전의 비결은 여호수아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11:9).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의 뒷발 힘줄을 끊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11:6). 그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어쩌면 말을 죽이는 편이 더 용맹스러워 보이고 더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을 테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말의 뒷발 힘줄을 끊었습니다(11:15).

여호수아가 가나안 왕들을 정복한 것은 모세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신3:21 - 22). 하나님께서는 우

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요단을 건넌 후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의 수는 도합 31명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23:3).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면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붙이셨고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11:8, 9). 가나안 정복은 정복의 개략이 기록된 여호수아 12장에서 끝이 납니다. 12장에는 31명의 왕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12:9 - 24).

3. 훌륭한 지도자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벌을 통해 훌륭한 지도자 상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결단한 지도자입니다. 기브온을 침략했던 다섯 왕들을 체포했을 때 여호수아의 목적은 그들 왕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군대를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그 왕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다가 굴에 묻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필요를 이해한 지도자입니다. 다섯 왕을 잡아왔을 때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을 부르고 군장들로 하여금 왕들의 목을 발로 밟게 하여 그들에게 공로를 돌렸습니다(10:24 - 25).

여호수아는 쉽게 갈 수 있는 편법을 찾기보다 정도를 걸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전진을 추구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 10 - 12장에 짧게 쓰여진 가나안 정복사는 7년 간에 걸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만을 따라 계속 전진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심없이 믿고 믿음대로 행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을 그대로 행하여 하나도 행치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11:15).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이미 세움받은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의 교회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상강좌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교회의 사명

이 글은 목회자신학세미나 9월 22일 제 2교시
한완상 한국방송대총장의 강의를 요약한 것입니다.

선하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창조질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을 “좋다” 하고 말씀하셨다.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다”고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좋다’라는 말에는 아름답다, 선하다, 건강하다, 평화롭다(살롭)는 뜻이 들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 인간의 모습은 본래의 건강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움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다. 탐욕과 이기심과 불신으로 깨어지고 망가지고 비뚤어져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갈라져 있다.

이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질서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본질을 망각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질서의 세계, 다시 말해 ‘참으로 좋았던 이 세상과 인간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다.

예수님의 취임사가 주는 의미

예수님의 첫 설교인 나사렛 교회에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 19절이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가장 좋아했을 만한 사람들은 모두 깨어진 인간, 비뚤어진 인간, 외로운 인간, 괴로운 사람들이었다. 탐욕이라는 인간의 장벽 때문에 억눌린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은 이렇듯 어딘가 고장 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공격적인 삶의 표적을 두셨다. 이것은 크게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장벽을 허물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깨어지고 흩어지고 아프고 괴롭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온전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정말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인간을 선사하겠다는 의미이다.

창조질서의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힌 후에 말씀 선포를 시작하셨다. 이는 그 때가 바로 세상이 바르지 못한 것, 옳지 못한 것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된 장소가 왜 하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였을까? 당시 갈릴리라는 곳은 밀바다, 흑암의 그늘에 사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던 장소였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된 시간과 장소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의해서 판단할 때 가장 아름답지 못한, 어둡고 캄캄하고 비뚤어진 상황과 시대와 장소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갈라지는 일에 앞장선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의 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의 힘

하나님께서서는 예수의 공적 활동에서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도 하나된 예를 많이 보여 주셨다(행2:1 ~ 11). 성령을 받은 사람

이라면 서로 통해야 한다. 성령께서는 모든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성령 받은 이들이 다 하나로 알아듣게 하는 힘이 있다.

서로 상통케 하시는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님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성령이 없다는 의미다.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했을 때 일어났던 첫 역사가 바로 서로 말이 통하게 하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지고 깨어진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아닌 까닭이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누구보다도 갈라지고 깨어지고 온전치 못한 것을 하나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십자가는 분열에서 하나로 가는 상징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많은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같은 장벽들을 허물 수 있는 논리는 바로 ‘~ 불구하고’의 십자가 사랑의 논리이다.

“너희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이해한다”는 사랑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갈라지는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참으로 좋다!”고 찬탄하셨던 그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만 한다. 그 하나님의 찬탄을 들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애써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일인 것이다.

유년부 편지쓰기 시간에

○○○께

하나님께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해 주시고 착한 마음을 갖게 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나요? 궁금해요. 하나님은 영원이죠. 현준 올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서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능력을 가지셨는지요? 하나님!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제가 기도드리는 것을 들으시고 꼭 고쳐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찬양도 잘 하게 해주시고 충

성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좋은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인제 올림

하나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를 빠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가끔씩 교회오는 게 즐겁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매일 기도를 하는 편이지만 어떤 때는 기도를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해 주시고 기도를 빼먹지 말고 매일 매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찬희 올림

선생님께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저는 무서웠어요. 미국에 있을 때 방송을 통해서 비행기

추락사고를 보았거든요. 비행기가 참 무서웠어요.

학교 선생님이 무서워요. 우리 학교 선생님은 벌도 세우고 청소도 시키시는데 교회 선생님은 친절해서 좋아요.

선생님,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승 올림

엄마께

엄마, 교회에서 엄마에게 편지를 써요. 엄마 저는요 찬양시간이 제일 재미있어요.

함께 하나님을 믿지만 엄마가 우리 교회에 안 나오시고 다른 교회에 가시는 것이 왜 그런지 궁금해요. 엄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게요. 선미 올림

유년부

△△ 올림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 소식

모임과 나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에 성도들의 관심이 각별한 만큼 화제도 만발.

○...이번 바자 물품을 접수하기 전 가장 큰 화제는 접수1호가 누구일까 하는 것이었는데... 열심이 특심한 그분은 알고 보니 다름 아닌 이종윤목사.

주위에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번 바자에서는 장롱 속에 깊이깊이 감춰뒀던 재산목록 1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었던 바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됐던 것이 사실. 이목사는 우선 고급 손목시계 3점을 1차로 접수

시키면서 계속해서 물품을 헌납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이번에 내어놓은 시계는 모두 각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채롭다. 바로 학위취득 시, 목사 안수 시, 총장 취임 시에 선물로 받은 것들로 딸 셋의 결혼식 때 사위들에게 주려고 아껴 사용해왔던 것이라고.

○...이번 바자에서도 농촌교회에서 직접 배한 무공해 농수산물이 특색있는 품목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농촌자매교회와의 유대강화라는 바자의 목적 중 하나와 각 가정의 건강거리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김치 표지 특허청 등록

우리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김치(KIMCHI) 표지가 특허청에 등록되어 고유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몇 년 전, 특허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던 김치 표지는 그간 누구의 장난인지 취소 소동(?)을 겪기도 했지만 9월 9일자로 다시 허가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배상길 목사 소천

목양감리교회 배상길 목사가 25일 오전 7시

35분 58세를 일기로 지병으로 소천했다. 배목사는 우리 교회에 대치동 교회 대지를 양도하고 경기도 수지로 이전한 목양감리교회의 당회장이었다. 발인은 29일(월) 오전 9시 수지에 있는 목양교회에서, 장지는 경기도 안성기도원이다.

서울교회 당회원들은 배목사의 빈소에 문상하고 유족과 목양교회 성도들을 위로했다.

목회자세미나 참여 대선후보 추가

목회자신학세미나 강의에 이인제 대선후보도 참여한다. 이 후보의 강연시간은 10월 27일 제 1교시에 있을 예정이다.

※ 순례자 컬럼 ※

절제

건강을 남용하면 병자가 되고 돈을 낭비하면 가난뱅이가 된다. 시간을 남용하면 패자가 되고 정력을 남용하면 후회하게 된다.

지나치게 쓰는 것을 과용이라고 한다면 탐욕, 무리, 혹사, 방탕 등은 이에 속하는 말들이다. 분수를 알고 지키고 족할 줄 아는 것을 절도있게 사용하는 적응이라 한다면 절제, 극기, 절약의 덕은 이에 속할 것이다.

절제있는 생활을 한다는 말은 곧 자기와의 싸움이며 그것은 또한 소망과 용기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절제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얻게 되고 공수표만 남발하듯 남용하는 사람도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절제란 아끼고 줄이는 것만이 아니다. 울어야 할 자리에선 눈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와 감사와 봉헌과 사랑의 통곡을 있게 하는 것이며 위선과 가증한 행위가 배격되고 적극적 헌신과 실천과 희생의 덕성이 되어야 한다. 가령 시간을 절제하는 이에게는 바쳐야 할 일에는 모든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 절약이요, 절제인 것이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9월 새가족 환영회



* 9월의 새가족 *

이주희 서희영 윤숙희 형영완 이경미 박성관 정명숙 이호중
홍성희 조영철 최희선 박미선 고수영 김경모 김범식 이상학
한순옥 박은혜 이복균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동정

◆ 오늘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임상현·서희숙 집사 가정에서 제공.

■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 ③ 9월 29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제 2교시 /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이희창 신한국당 대선후보)
- ④ 10월 6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제 2교시 /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김대중 국회의원 대선후보)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기독교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를 위해
2.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3. ‘97 비전2000운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